

아사마트의 다리

아주 먼 옛날 수백년 전에 아라마시 산맥에는 울랍이라는 용사가 살고 있었어요. 그곳에서 그는 셀 수 없을 만큼 많고 헤아릴 수 없는 가축떼를 기르고 있었어요. 그 어떤 재난과 불행도 그에게 생기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산들이 불길하게 시끄러운 소리를 내고 굉굉 울리기 시작했어요. 그때까지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것과 같은 일은 일어난 적이 없었어요. 산의 호수와 강은 물이 넘쳐서 계곡에 있는 푸른 들판에까지 넘쳐나기 시작했어요. 물은 점점 많아졌고, 울랍의 가축들은 배가 고파서 힘들어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용사 울랍은 힘이 빠진 소와 말과 양들을 산맥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물이 없는 곳으로 데려갔어요. 삼일 낮과 삼일 밤 동안 울랍은 자신의 가축들을 계속 데려왔지만, 모두를 데려올 수는 없었어요. 혼자 사는 늙은 대장장이 아사마트는 그 어려움에서 그를 구해주었어요. 칠일 밤낮동안 아사마트는 철을 단련했어요. 땅의 꽃과 비슷한, 놀라울 정도로 훌륭하고 빛나는 철다리를 만들었어요. 철다리의 한 쪽은 아라마시 산맥에 있었고, 또 한 쪽은 불가 강가에 있었어요. 울랍의 어머니는 배고픈 가축들을 시끄럽고 천둥치는 산맥에서 아주 푸른 초원으로 그 다리를 따라서 멀리 쫓았어요. 그 가축들이 다리를 건너간 뒤에는 바로 눈 앞에서 사라졌어요. 이것이 비가 내리는 동안 구름 건너에 볼 수 있는 아치를 추바시 사람들이 아사마트의 다리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